



불자의 눈

공익법인과 시대정신

조계종이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을 설립한다.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각종 재난으로 인해 고통 받으며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자는 취지의 재단이다. 끔찍한 살인사건과 재난이 그치지 않는 이 시대의 중생들에게 불교계가 '동행'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다.

대승불교의 정신은 행복을 함께 누리는데 있다. 깨달음이라는 지고의 가치에만 목말라 하지 않고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통을 행복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신행이다. 불교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행복을 길어 올리고 이웃과 나눌 것을 가르친다. 그래서 대승이다. 큰 수레를 함께 타고 간다는.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은 그 이름에서 대승불교의 정신을 물신 풍기고 있다. 그런 만큼 향후 운영도 특정의 집단이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평범한 이웃들이 바로 결의 이웃들을 위해 마음을 여는데 집중될 것으로 믿는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계획도 세워 둔 것으로 전해진다.

불교는 시대를 이끌어 가는 종교다. 불교가 보편적 대중의 삶과 문화 그리고 사회가치를 이끌어갈 때 세상은 불국토가 될 수 있다. 이번에 설립하는 공익재단이 바로 제대로 된 불교의 시대정신, 역사적 소명의식이 무엇인가를 알려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참 일꾼을 선택하는 지혜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은 또 하루의 '선택의 날'을 앞두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정치권은 공천 논란 등으로 어수선했다. 그 소란으로 국민적 혼란도 극심했던 게 사실이다.

현대사회에서의 정치는 복잡적이다. 정당정치의 속성과 권력쟁취의 욕망에 지역주의와 집단이기주의까지 합세한 것이 오늘날의 정치 형국이기 때문이다. 경제와 문화 등이 포괄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정치구조에서 선거는 보다 큰 틀에서의 지혜를 요구한다. 거기에 종교와 정치의 모호한 결합까지 더해지면서 불자들은 다소간의 혼란을 겪고 있다. 종교색을 띤 정당이 출범하고 나름대로 후보를 내는 모습을 지켜 보면서 '정교분리'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가를 위해 지역을 위해 일 해보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 그들에게 국가의 명운을 맡기는 입장에서 유권자는 보다 철저한 검증은 필요로 한다. 그러나 검증 시스템 보다는 당리당략과 의석 확보에 매몰된 오늘날의 정치 현실은 긴 안목에서의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자신의 참정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누가 참 일꾼인가를 분별하는 방식은 각자의 몫이지만, 진심으로 지역과 나라를 위해 '털사봉공'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는 대의는 변할 수 없다. 진심으로 바라볼 때 진심은 보이는 것이다. 4월 9일 불자 대중은 투표소로 달려가 참 일꾼을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조국 중 한 곳만 표시하면 된다는 규정자체가 편법을 조장하게 한다는 것도 우습다.

이참에 반제품 제조국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을 바꾸고 강력한 처벌조항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새우깡의 짭조름하고 바삭한 맛으로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애용해 온 국민 스낵이 라는데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노래방이나 소풍 따위로 새우깡하면 떠오르는 추억을 한 두 개쯤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손이가요, 손이가요. 자꾸자꾸 손이 가"라는 중독성에, 가난한 서민들의 술자리 안주로도 한몫했던 과자가 아니었던가.

소설가 최재경씨는 자신의 소설 <숨 쉬는 새우깡>에서 새우깡 개발자인 남자가 과자의 완성 을 앞두고 억울하게 죽은 뒤 그 영혼이 여자아이 에게 깃든다는 설정을 하고 있다. 여자아이는 새우깡과 함께 태어나 새우깡을 먹으며 자란다. 여자아이의 역사는 새우깡의 역사이자 197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문화사이기도 하다.

이런 새우깡이니 파문이 단순히 먹을거리의 불안에 대한 차원을 넘어 충격으로 다가온다. 새우깡이 불러오는 한 시대, 혹은 유년의 아름다운 추억의 한 조각이 훼손된 듯한 상실감이다.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극작가.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식품 불신시대의 자화상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산다. 먹을거리의 경우 삶의 기본 조건이며 식품회사는 어떤 상품보다도 깊은 책임감을 갖추어야 한다. 소비자와의 생명을 담보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업은 과연 그러한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유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영무새처럼 재발 방지책을 내놓지

만 잠시 그때뿐이다. 언제까지 마냥 기업가의 양심에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국산품인줄 알았던 새우깡이 중국에서 반죽을 만들고 새우깡 모양으로 커팅을 한 반제품으로 들어온다는 사실도 소비자들로서는 놀라운 일이었을 것이다. 재료 원산지 표시와 반제품 제

“어린시절 원망했던 선생님 오히려 감사”

돈 없는 설움

박씨는 어렸을 때의 서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다. 산골에서 살던 그의 아버지는 지병을 앓다가 박씨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다. 장례식날 그는 슬피 울면서도 막상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곧 알게 되었다. 동네 어른들은 그를 보면 “불쌍한 것”하고 말하곤 하였다. 친척들도 “어떡하나, 거 참”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아이와 싸우고 울며 돌아오자 어머니는 무섭게 화를 내었다. “너 남을 때렸니!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서 버릇없이 큰다는 말 들으면 안 돼!” 그 때 처음으로 박씨는 똑같은 행동도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 다음부터는 조심하게 되었다. 고생하시는 어머니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박씨 집 형편은 무척 어려웠다. 그나마 조금 있던 돈도 아버지 지병을 치료하는 동안 다 들어가 빛이 많아진 것이었다. 읍내에 있는 중학교에 들어간 후 박씨의 시련은 시작되었다. 돈이 없어 육성회비를 낼 수가 없었다. 한 달, 두 달이 밀리자 담임선생님은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종일 남의 집 일을 하시는 어머니가 낮에 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박씨는 차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⑤7 역경을 되돌려 성공하다

마 어머니에게 그 말을 하지 못했다. 설사 말한다 한들 어머니는 육성회비 낼 돈이 없을 것이다. '마음만 더 아프실 텐데' 하며 그냥 학교에 갔다.

전설적 노력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박씨를 앞으로 불렀다. “이 놈, 넌 육성회비가 밀렸어. 그런데 반성도 안 해!” 하고는 앞에 있던 슬리퍼를 집어 들었다. 그 슬리퍼로 선생님은 박씨의 뺨을 때리기 시작했다. 어린 박씨는 너무 놀랐다. 뺨도 아팠지만 모든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맞고 있는 것이 창피하고 슬펐다. 문득 내가 왜 맞아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돈이 없는 건 내 잘못이 아닌데, 하며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담임선생님은 왜 무슨 사정이 있어 못 내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을까. 그날

밤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들리지 않으려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었다.

그 때부터 박씨는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 여전히 돈은 없었다. 비용을 내지 못해 수학여행조차 갈 수 없었다. 그럴 때면 눈물을 삼키고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고등학교에 가서 성적이 상위권에 들면서 선생님들이 무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어렵게 학비를 벌면서 지방대학에 다녔다. ‘독하게 공부한다’는 말을 줄곧 들었다. 말단으로 취직한 회사에서 돈도 인맥도 없이 오직 진실하게 노력했다.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이 사장 눈에 들어 고소득진을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인맥하나 없이 그리고 학연도 내세를 갖 없는 지방대를 나와 이사자리에까지 오른 박씨는 그 회사의 전설이 되고 있다고 한다.

고는 나를 위한 것

황수경(동국대 선행과 강사)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천신암
- 법 명 : 연화(속명 - 강임자)
- 주 소 : 경북 영천시 고경면 오룡2리 1163번지

상기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일

한국불교대각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비룡사
- 주 소 : 충북 단양군 매포읍 어의곡리 41번지

상기 사찰은 2002년 10월 15일
사찰명 '한국불교 태고종 비룡사'에서
'비룡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7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관음정사
- 법 명 : 유심
- 주 소 : 부산 동구 초량2동 467번지
- 사찰명 : 연주사
- 법 명 : 원덕
- 주 소 : 부산 진구 초읍동 263-25

- 사찰명 : 법정사
- 법 명 : 법정 법진
- 주 소 : 부산 북구 덕천동 390-5

상기 사찰과 종도는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일

(재)대한불교일명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운암사
- 주 지 : 혜수
- 주 소 : 충남 천안시 북면 대평리 677-3

상기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일

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장 법하